

국제환경규제동향과 대응 방안

〈2〉

■ 산업연구원

2.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동향

과거에는 상호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이 최근 들어 양 정책간의 조정·통합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GATT, UN, OECD, ISO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 GATT

GATT는 개별국가 또는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기존의 국제무역질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복잡성, 입장 및 관점의 다양성, UR 협상타결의 긴급성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GATT내에서는 ①GATT이사회 ②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환경무역작업반), ③국내금지제품과 기타 유해물질의 수출에 관한 작업반(유해물질수출작업반), ④GATT사무국 등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GATT의 기본입장은 무역규제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환경정책의 대안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2) OECD

OECD는 환경과 무역문제에 관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동기구는 1972년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과 관련한 지침의 원칙”을 발표하면서 다음의 4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 환경보호에 필요한 규정이 설정되었을 경우 이의 이행에 수반되는 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한다.

② 조화원칙(Harmonization Principle) : 각국정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간 환경정책 및 규정의 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National Treatment and Nondiscrimination Principle) : 각국은 환경조치

시행시 GATT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을 준수한다.

④ 보상적수입부과금 및 수출환급 금지원칙(Compensating Import Levies and Export Rebates Principle) : 각국은 환경정책의 차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부과금이나 수출환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1991년 1월에는 무역위원회와 환경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한 합동작업반이 구성되어 무역과 환경간의 조화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한 후 이를 1993년 6월 OECD각료이사회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분야별로 세부지침을 작성중에 있다.

현재 동작업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은 크게 6개 분야로 구분되는 데 이는 1) 정책요강서설 2) 국내환경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3) 무역정책과 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를 위한 지침 4) 국제환경협정에 있어서 무역조치활용을 위한 지침 5) 환경목적을 위한 일방적 무역조치 사용에 관한 지침 6) 환경정책의 조화를 통한 무역 및 환경목적달성을 위한 지침 등이다.

(3) UN

UN내에서의 환경과 무역에 관한 논의는 지난해 6월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리우선언」 원칙12 및 「의제21(Agenda 21)」의 제2장에 반영되어 있다.

「리우선언」 원칙12에는 “각국은 환경악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의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함에 있어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를 증진시키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아니되고, 수입국의 관할지역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하며,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환경적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의제21」의 제2장을 통해 초국적, 지구적 환경 문제를 규제하는 환경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무역간의 조화를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의 개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원칙으로 무차별원칙, 최소규제원칙 등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특정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역규제조치의 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방적 규제를 인정하는 입장은 취했다.

(4) ISO

ISO는 오염물질함량을 단순반복적으로 측정분석 하던 기존의 환경관리개념을 조직체내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의 체계적인 환경활동과 능력을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환경경영 국제규격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산하에 설치된 기술위원회(ISO / IC 207)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영업표준화대상은 7개 주제로 되어 있으며 각 주제별로 부회(SC)가 설치되어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SC1 : 조직체가 환경영영체제를 도입 채택하고자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규정한 환경영영체제에 대한 규격

- SC2 : 조직체의 환경영영체제와 산업활동에 대한 각종 감사절차와 감사자의 자격기준, 감사기관의 감사계획 설정에 대한 규격

- SC3 :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환경표시절차와 방법 및 표시내용의 확인방법에 대한 환경라벨링규격

- SC4 : 조직체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또는 환경목표 이행의 정도를 오염인자별로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정량적 비교 분석하는 환경성능 분석

- SC5 : 상품의 제조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환경적 관계인자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라이프사이클 분석

- SC6 : 환경에 대한 각종 용어의 정의와 수식의 규정에 대한 기본규격

III. 환경라운드에 대한 논의

1. 정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들이 국제환경협약, 지역환경협정, 쌍무간 또는 개별국의 일방적 규제조치 등을 통하여 무원칙적으로 발동됨에 따라 규제내용간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조치들이 GATT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GATT회원국간에 통용되는 환경과 무역에 관한 규범의 제정이 요구되는 데 이를 위한 다자간무역협상을 환경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Green Round’의 개념에는 유엔환경개발회의의 이행을 담당하는 지속개발위원회(CSD)의 활동,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과 이행 등도 포함되어 있어 환경과 개발, 그리고 무역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배경

최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범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 다자간환경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산성비, 주변해역 및 국제하천의 오염 등을 둘러싸고 인접국가간 마찰이 빈발하고 있다.

또한 개별국가들에 의해서도 자국이 설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일방적인 환경규제조치도 빈번하게 발동하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들은 그 형태가 지역협정이든 개별국에 의한 일방적인 규제조치이든 대부분 무역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GATT의 이념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따라서 환경관련 무역규범을 GATT체제내에 흡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추진동향

GATT는 환경규제조치가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GATT의 이념과 상충됨에 따라 환경과 무역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20여년 전 설치된 무역환경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OECD는 무역·환경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역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중에 있다.

협상은 이번 UR협상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추진될 것인 바, WTO에는 GATT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의결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라운드의 협상기간이 UR에 비해 크게 단축되고 미국에 비해 환경규제요구가 강한 EC의 입장이 크게 변영될 수 있을 것이다.

는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제조업종 뿐만 아니라 병원, 백화점 등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여 경영단위별로 종합적인 환경관리체계를 요구하는 환경경영 국제규격의 채택을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Max Baucus 미상원의원은 1991년 10월 환경기준의 차이가 경쟁력 격차의 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계판세 부과가 불가피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관무역 협상인 Green Round의 출범을 제의하였으며, 미국은 1993년 7월 UR타결 이후 공정경쟁, 기술, 투자, 노동 분야와 함께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클린턴라운드의 출범을 제의한 바 있다.

4. 향후 추진전망과 주요내용

추후 환경라운드의 추진일정과 내용에 대해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나 출범시점은 대체로 UR의 발효가 예상되는 1995년 중반경으로 예상된다.

이는 GATT의 대체기구로 설립하기로 한 세계무역 기구(WTO)가 내년 초반경에 구체화되고 국제환경협약중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게 될 기후변화협약이 금년 3월중에 발효되어 협약의 개정이나 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규제내용이 구체화될 시점이 내년 중반경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환경라운드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OECD 등에서 통용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PPP), 생산자책임원칙(LP) 등을 토대로 한 자유무역과 환경보호간의 관계 정립에 모아질 것이며, 환경과 무역의 관계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에 환경 규제가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라운드에서는 선진국들이 생산코스트가

더 들기 때문에 공정무역이란 차원에서 공정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마다 상이한 환경기준을 통일하자는 주장도 대두될 것이나 이미 경제통합을 이룩한 EC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침례하게 대립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5. 특 징

환경라운드는 무역자유화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왔던 종전의 다자간무역협상과는 달리 무역을 규제하는 형태로 협상방향이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케네디라운드(1964~67년)에서는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었고 이어서 동경라운드(1973~79년)를 통해 수량제한 등 많은 비관세장벽의 발동이 제한되었으며 이번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자유화 대상범위를 제조제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농산물 등으로 확대시켰다.

물론 차기라운드에서도 UR에서 미타결된 일부 서비스부문의 개방화가 추진되는 동시에 자유화 범위를 상품 및 서비스에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역자유화를 더욱 진전시킬 수도 있으나 환경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와 반대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규제조치는 지구환경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수단일지 모르나 그 근저에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사용해 오던 기존의 수단들을 UR의 타결로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의 대체수단으로서 환경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다.

협상은 이번 UR협상에서 설치하기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추진될 것인 바, WTO에는

GATT에서와는 달리 강제집행권을 부여하고 의결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환경라운드의 협상기간이 UR에 비해 크게 단축되고 미국에 비해 환경규제요구가 강한 EC의 입장이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라운드도 종래의 다자간무역협상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나 선진국간에는 협상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협상에서는 미국이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공세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환경라운드에서는 유엔환경개발회의 등 국제환경협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EC와 일본이 협상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IV. 국제환경규제의 영향과 대응 방안

1. 국제환경규제의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의 산업구조 및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볼 때 국제환경규제의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수출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체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국제환경협약과 개별국가에 의한 환경규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은 경제발전단계와 산업구조 그리고 환경용량 등의 차이로 인해 다를 것이며 산업 및 업종별로도 크게 상이할 것이다. 국제분업구조의 형태 및 기술수준에 따라서는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강화되는 산업이나 업종도 있을 것이다.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장벽은 일반적인 무역규제나 국제경쟁력의 약화와는 차원을 달리하여 환경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수출이 전혀 불가능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국 자동차시장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반면 여타국가들의 수출여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도가 완화될 수도 있어 오히려 환경규제를 수출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또한 국내 환경질의 개선이 촉진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쾌적한 환경은 인간생활의 기본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우리국민들이 환경에 부여하는 가치도 증대되고 있어 환경질의 개선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편익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대응방안

(1) 정부의 대응방안

1) 대외적 대응방안

가. 환경외교의 강화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이나 GATT내 환경과 무역에 관한 협의 등의 협상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의 외교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환경과 무역에 대한 기본입장의 정립

i)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

무역자유화와 환경보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조치는 환경오염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는데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자유화가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또한 환경비용의 내부화 등 건전한 환경정책이 전제되지 않은 무역자유화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통합·조정을 위한 메카니즘이 국내·외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ii) 국제환경문제와 무역규제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안은 다자간 협력을 통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및 적정비용분담에 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환경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무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최소화하고 협약목적과의 비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약으로 합의되지 않은 국제환경문제의 해결수단으로 사용되는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무역질서에도 역행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한다.

iii) 국내환경문제와 무역규제

각국은 자국의 자연조건 및 경제·사회여건에 적합한 환경정책 및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국 및 국제기구가 이의 변경을 강요할 수 없다.

국내환경정책 및 기준에 근거하여 무역규제가 시행되는 경우 국내상품과 수입상품은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무역규제는 국내환경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의 입증의무 및 동 조치의 투명성 확보의무는 시행국이 져야 한다.

자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타국의 생산방식 및 공정에 대한 일방적 무역규제는 비교우위의 원천으로서의 환경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책주권에 대한 침해이며 경제발전단계가 다른 국가 간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대내적 대응방안

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전환 및 대국민홍보 강화

국가경제운용을 환경보전과 산업발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발전(ESSD)의 개념을 바탕으로 재정립하고 국가경제지표도 생산측면만 반영된 국민총생산(GNP)에서 환경오염 등을 차감한 녹색GNP(Green GNP)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사전준비태세의 확립이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관건이 되고 있는 만큼 환경라운드 논의동향 등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 환경질의 개선 등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과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무역제재 등 국제환경협약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체결된 국제협약에 대한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이를 위한 국내법령제정, 제도정비, 관계업계의 대응능력제고 등 내적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구환경대책위원회와 산하 실무대책회의 및 기획단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민간 및 정부부처간의 협력체제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본투자기획단처럼 청와대 내에 상설기구로서 「(가칭)환경라운드대책기획단」의 설치를 검토한다.

다.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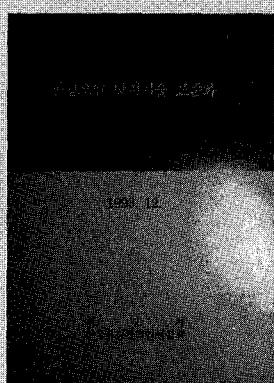
또한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 석유화학 등 노동, 자원 및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중심에서 조립금속, 기계, 전기·전자, 수송장비 등 기술·지식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

환경기술과 공해방지시설업 등 관련산업이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환경규제를 극복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이의 개발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환경기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수요가 창출된다

신간안내



◀ 환경오염 방지기술 표준화

(환경기술감리표준화 V)

•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발행

• 4×6배판, 402쪽,

- 대기분야

도기, 자기 및 토기제조시설

유리 및 유리제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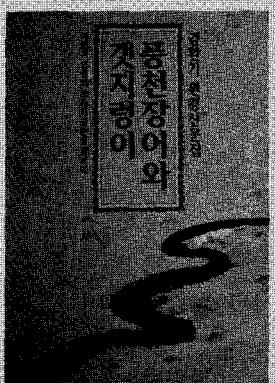
구조점토제품 // 외

- 수질분야

조미료 제조시설

당류 //

커피, 프리마 // 외



는 환경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내외 환경시장 규모는 급증할 것이므로 국내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마. 효율적인 공해방지제도의 수립 추진

국내산업의 잠재력과 국제환경규제동향 등을 감안하여 국내환경기준을 재검토한 후 환경목표를 장·단기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등 공해방지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시장경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현행의 직접규제방식 및 배출부과금제도와 병행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배출규제와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행 농도규제중심의 배출규제방식을 총량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규모의 영세성, 만성적 자금압박 등으로 공해방지설비의 설치가 어려운 중소배출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대응방안

1) 환경친화적 경영전략의 수립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기업전략은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획 단계에서부터 환경요인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기업은 존립의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즉,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면서 기업의 성과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녹색생산(Green Production), 녹색마케팅(Green Marketing), 녹색이미지(Green Image) 등 녹색전략(Green Strategy)체계를 구축한다.

2) 환경관련조직의 강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정책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관계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조직을 재구성해야 한다.

개별기업 차원에서도 국제환경규제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협상개최지는 물론 OECD, EC, GATT, ISO 등 국제기구가 소재한 지역의 지사에 환경전담요원을 파견해 둘 필요가 있다.

3) 생산공정의 혁신

단기적으로는 오염방지시설의 증·개설을 통해 최종처리(end-of-pipe)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오염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 개선, 청정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오염발생의 예방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 ◀

◀ 풍천장어와 갯지렁이

- 김환기 지음
- 도서출판 푸른나무
- 신국판, 204쪽, 4,500원

—환경현실에 대한, 실제생활을 통한 진솔한 접근과 그 대안을 찾아나선 저자가 잘못된 환경상식의 허실을 짚으며 주변의 환경오염문제를 다른 환경문집. 인간이 망가트린 자연에 의해 인간의 삶이 망가지는 불행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꼭 지켜가야 할 자연의 이야기.



◀ 지구촌 환경재난

- 이두호, 박석준 지음
- 도서출판 따님
- 신국판, 249쪽, 5,600원

—20세기 이후 인류가 겪은 대규모 환경재난 사례 37개에 대해 그 발생 원인 및 경과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우리 나라의 실태와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있는 한편, 쉽게 써진 환경책을 접하기 어려운 일반인을 위해 각 사건내용에 주와 그림을 덧붙여 기본적인 환경지식을 제공하고 있다.